

93. 7. 4

누가 미인되길 싫어하랴. 모두들 열심이다. 화장에서 헤어스타일 옷모자 신발들 패션에까지 여자들이 쏟는 정열이나 시간 돈은 남자들은 상상도 못한다.

그 뿐인가. 물매를 다듬기 위해서 가히 절사적이다. 실제로 목숨을 건다. 지나친 다이어트로 영양실조에 빠져 면역체계가 무너진다. 각기 끝에도 폐렴으로 죽게 된다. 식욕억제제 남용으로 만성 수면부족 우울증 심지어는 회복불능의 정신병에 빠지기도 한다.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을 잃어 화장이 먹지도 않는다. 그래도 한이 차지 않아 이판사판으로 과량 복용했으니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美에 목숨진 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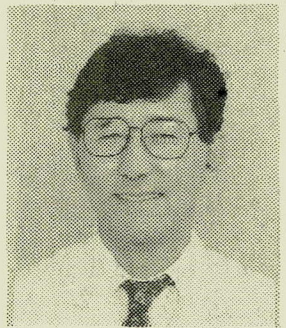
해마다 여름 해수욕철이 오면 미키니를 입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다이어트에 죽음을 부른다. 많은 사망보고가 났다라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 신진국 정신과에는 섭식장애가 증가일로에 있다. 물론 피해자는 젊

93. 7. 4

아침을 열며

李 時 炯



美人증후군

이런 질환이 우리 한국에도 최근 몇 년이 부쩍 늘어났으니 신진국 문턱에 들어선 정후일가. 성형수술도 폭발전 유행이다. 체형에 맞게 잘 말하면 좋다. 문제 미인증후군환자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시대 따라 美의 개념이 달라지는 데 있다. 요즘은 일본에서는 동양적인 미를 위해 쌍꺼풀없는 수술이 유행이라고 한다. 몇해전만 해도 풍만한 유방 하나로 세계적 인스타가 된 여인도 있었다. 그러나 동양적인 미가 강조되는 요

은 여성증이 일반적이다. 아예 식음을 전폐한다. 기초대사가 안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도 환자들은 먹기를 거부한다. 얼마간 절제했던 배가 고포지도 않다고 한다. 이런 신경성무식욕증과는 반대로 과식증도 있다. 아주 게질스럽게 포식한 후 전부토해버리는 증상이다. 이전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 위액 등 중요한 전해질을 함께 토해내기 때문이다. 미인증후군의 대표적인

는 해서 안될 사람이 여자를 부리는 경우다. 몇군데서 거절당하면 결국 돌발이 한테서 소원대로 수술을 받는다. 만족할 리가 없다. 재수술, 또 수술 결국 아예 눈꺼풀이 달라붙어 눈볼 못잡아 실명한 경우도 있다. 이를전원을 잡어 놓아 코가 내려앉은 사람 유방이 쪼는 사람도 있다. 또 예쁘게 수술이 잘되었는데도 계속 불만 심지어 소송까지 해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애를 먹기도 한다. 이런

조용한 품만으로도 오히려 미련해 보인다. 티셔츠 밑에 살짝 탈라져서 발랄하고 탄력 있어 보인다. 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문화권에 따라 미인의 기준도 달라서 서구사라는 그럴잖아 다들 미인보다 자연스런 개성미를 좋아한다. 이렇기 때문 현대생활에서 는 이 또한 골치이다.

여자를 젊은 여성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거두고 직장도 미인을 노략쳐 흘러 보기도 좋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뭔가 뭐니 해도 미인에게 불린 프라미엄이나 심리적 광배효과(光背效果)는 대단하다. 약사 빠른 장사꾼이 美의 市場을 그냥 둘 리 없다. 미인을 등용시켜 상품선전도 하고 미인대회란 것도 만들어 냈다. 여성분들이라는 반대파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어느 관이건 쓰기만 하면 스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도 사실이다. 별로 내세울 건 없어도 용모에 자신있는 여성이면 노력불직한 일이다.

문제는 미의 기준이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당기간 심사를 거치지만 완전 미인을 골라 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역대 미인중엔 심각한 신체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도 있었고 성격적 문제 심지어 정신분열병도 있었다. 심사관이 절좌이다. 동양적 미의 표준은 유난했지만 일견 추상하고 차분한 면이 정신분열병의 증상이라는 걸 심사위원들이 알지 못했지. 또 몇해전엔 애기업이란 사실이 늦게야 알려진

정도 있다.

미인대회에 정신건강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의 신체적 성격적 건강 진단을 해두는 건 나쁘지 않으리란 생각이다. 지성 교양 인품 사교인으로서의 유머센스까지 갖춘다면 보다 완벽한 미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지나친 것 같지만 그래도 우기고 싶은 건 外의인 美에 못지 않게 內的인 美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최소한 도주하고 미인관을 사는 꼴은 안 봤을테데 하는 아쉬움에서다. 우리 주위에는 일할 수 못하는 추한 미인도 적지 않아서다. 그리고 너무 길지장에 매달려 속치장을 깨울리하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다.

「젊음」그대는 젊음은 것 하나만으로도 아를 땀다. 거기다 건강하고 밝고 맑은 모습 그리고 나를 의 개성이 있고 부위기 질은 여자, 아름답지 않인가.

미인증후군 환자보다야 인간적이고 자연스런 미가 넘치는 그대가 더욱 매력적이다.

(고려병원원장)